

지역 소식통

정읍시, 가축전염병 예방
구제역·럼피스킨 집중

정읍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지역 내 모든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FMD) 및 럼피스킨병(LSD)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경기도와 충북 지역에서 럼피스킨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 전염병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가축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이번 일제접종 대상은 지역 내 소 사육농가 1713호에서 사육 중인 10만 1164두의 소이며, 이들 농가는 구제역과 럼피스킨병 백신을 모두 접종받게 된다. 또한 염소를 사육 중인 102호 농가에서는 총 9743두의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만 일제 접종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은 농가의 규모에 따라 나뉘어 진행된다. 소 50두 미만 또는 염소 농가의 경우, 시에서 파견한 공무원으로 구성된 접종반이 직접 방문해 백신 접종을 지원한다. 소 50두 이상을 사육하는 전문농가는 자가 접종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가축전염병 차단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부안군은 구제역·럼피스킨 및 조류인플루엔자(AD) 발생 가능성이 높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 질병 유입방지 및 안정화를 위해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나선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국내 첫 발생한 럼피스킨은 올해 전국에서 5건이 발생하는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고병원성 AI 유입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부안군은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방역을 실시하고 축산농가에 행정명령을 발동함과 동시에 생석회 도포, 소독필증 확인·보관, 매개체 방제 등 가금사육 농장에 대해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당부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내년 국가예산 확보 위한 국회 방문

심덕섭 고창군수, 정을호 의원 등과 면담... 현안사업 설명 · 국비 지원 요청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30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심 군수는 이날 오전 고창출신 정을호 국회의원(교육위원회)과 면담을 통해 △국제 카누 슬라럼 경기장 조성사업(200억원),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조성사업(구시포)(100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58억원)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국비 지원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국제 카누 슬라럼 경기장 조성사업은 대규모 민간투자가 진행되는 심원면 염전부지 일원에 국내 최초로 카누 경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각종 대회 유치와 계절별 프로그램 구축 등 생 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정부의 조정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창 등 5개 지역에 대해 재정지

원 미련을 건의했다.

또한 심덕섭 군수는 한국경제인협회 감찰법 부회장을 만나 민간투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을 설명했다.

특히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또한 감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으로 생산된 절임배추 등을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식품업체 등에 홍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는 기존 시기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1년 5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조곡천 들풀마당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공식 개방했다.

주차는 기본, 문화는 덤

정읍시, '조곡천 들풀마당 공영주차장' 개장

정읍시는 기존 시기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1년 5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조곡천 들풀마당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공식 개방했다.

조곡천 들풀마당 공영주차장은 국비 24억원을 포함해 총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건축 연면적은 1770㎡ 규모로, 지상 1층은 주차 공간으로, 옥상은 시민들을 위한 다목적 광장으로 구성됐다. 주차장 1층에는 총 70면의 주차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설치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옥상에 마련된 다목적 광장이다. 이곳에는 야외 무대, 산책로, 운동기구, 그늘 쉼터 등 시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이 조성됐다. 단순히 주차장 역할을 넘어선 이 공간은 다양한 문화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열린 문화 공간으로서도 활용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이다. 옥상 광장의 무대 벽면을 활용해 영화 상영,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영상 콘텐츠를 상영하고, 소규모 문화 공연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문화적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11일과 12일 시 공동체협회 및 시 지역협력센터가 주관하는 '공동체 플라멩코 어울림마당'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지역 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조곡천 들풀마당 공영주차장은 단순한 주차 시설을 넘어,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이 공간이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명소가 되기를 바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태풍 · 가을축제 안전, 전 부서 · 읍면동에 지시

이학수 정읍시장, "태풍 피해 최소화 위해 모든 부서가 사전 점검 ·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30일 영상 간담회를 갖고 다가오는 태풍 18호 '크라핀'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전 부서와 읍면동에 지시했다.

이 시장은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부서가 사전 점검과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각종 대비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 시장은 10월에 예정된 구절초꽃축제 등 가을철 행사와 관련해 "행사 진행 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이도록 철저한 관리와 준비를 주문했다.

이어 이 시장은 행사 전후로 철저한 안전 점검과 관리 감독을 통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것을 강조하며, 지역

경제와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부서장들이 먼저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모든 직원들이 시 발전을 위해 동참해주길 바란다"면서 "적극 행정이야말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요소다.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을 통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의회, 벼멸구 피해지역 현장점검 나서

부안군의회(박병래 의장)는 지난 27일 계화, 동진 등 벼멸구 피해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 확인은 부안군에 20년만에 발생한 벼멸구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부안군의회 의원들과 부안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벼멸구의 피해가 확산된 논들을 직접 살



펴보며 농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벼멸구는 벼에 기생하여 수확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해충으로 현재까지 부안군 피해규모는 700ha에 이르고 있으며 급속하게 확산되어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박병래 의장은 "부안군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피해복구와 방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현장을 찾은 주민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고창수박 명품화 전략' 특화아카데미 교육

고창군이 '고창수박' 지리적표시 등록에 힘입어 '고창수박 명품화 전략'을 추진한다.

지난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27일 고창군수박연합회 회원과 관련 기관 및 단체장들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품수박 아카데미 개강식'을 개최했다.

개강식은 지리적표시 인증서 전달식과 축하 퍼포먼스 등이 포함된 1부 행사와 이랜드그룹 경영고문인 이인석 대표의 고창수박 명품 브랜드화 전략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듣는 2부행사로 진행됐다.

명품수박 아카데미에 참석한 농가들은 고창수박 지리적표시 등록에 함께

기뻐했다. 명품수박 아카데미는 앞으로 10차례 총 30시간의 교육 과정으로 다양한 전문강사를 초빙해 최고품질 수박 생산 재배기술, 농부의 철학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카데미 합격자들 중 명품수박 생산자를 선발하고, 선발된 생산자가 재배한 수박을 프리미엄급으로 유통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추진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수박 명품화 추진전략을 내실있게 진행해 최상의 품질관리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전국 제일의 수박 브랜드 명성을 유지해 나아가 고창수박에 날개를 달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